불교 총지종 50년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통권 제 222호
강남. 라 00943

2566
2022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시절 인연

살다보면
율곡매의 봄

십선선성취
아픈 만큼 성숙한다

불교총지종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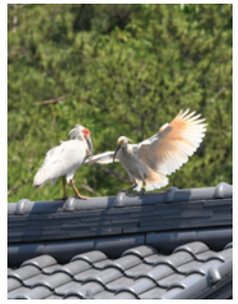
상대相對를 인정認定해야

우리들 사람은 상대적相對的으로 생존生存하고 있다. 내가 이익利益하려면 남을 먼저 이익利益케 해야 하고, 남을 이익利益케 하면 나는 저절로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원적二元的이며 다원적多元的이고 복합적複合的이다. 남을 해害롭게 하면 내가 해害롭고 남을 이익利益케 하면 나도 이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과원칙因果原則에 의依하여 그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상대相對할 때는 자기自己 가치價値만 상실喪失하게 되느니라. 정치政治에나 부귀富貴에나 지위地位에나 권력勸力에나 명예名譽에나 모두 상대相對를 인정認定해야 하느니라.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새 이야기 _ 27
따오기
_ 정옥식

카일라스 _ 48
밀라래빠의 토굴, 쥬툴푹
_ 김규현

동행 _ 58
아버님 전상서
_ 남익 보살

목차

2566
2022
04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12 불교이야기
16 살다보면
22 산책
24 아름다운 세상
27 새이야기
32 마음의 등불
36 지혜의 뜨락
40 십선성취
44 죽비소리
48 카일라스
54 디딤돌
58 동행
64 걸망에 담긴 이야기
66 함께보는 불교미술
70 육자의궤 염송
74 뜻 바루기
76 컬러링 만다라세상
78 법회일정

불공 잘해라 - 제1장 시절 인연 _ 김천
서원誓願 1 _ 화령 정사
율곡매栗谷梅의 봄 _ 이옥경
봄의 목소리 _ 김대곤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6가지 마음 습관 _ 묘원화 전수
따오기 _ 정옥식
파자시破字詩에 담아낸 신라 멸망과 고려 건국 _ 이승용
전생에 스님이었다는 구자홍 회장을 기리며 _ 방귀희
아픈 만큼 성숙한다 _ 남혜 정사
환경環境과 심경心境 _ 김봉래
카일라스의 순례 _ 김규현
호흡 바라보기 _ 신진욱
아버님 전상서 _ 남익 보살
진정한 사랑은? _ 법일 정사
고려불화 _ 위드다르마 편집실
각종 진언의 공덕 下 _ 위드다르마 편집실
마야(māyā) _ 김재동

성공의 밑거름, 준비

영국의 윔블던 테니스장은 일 년에 2주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 년 내내 준비하고 가꾼다고 합니다.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대회가 무사히 마치는 것을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잔디를 관리하는 것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대회를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옛말에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양병십년 용병일일養兵十年 用兵一日'이
있듯이 하루를 쓰기 위한 10년의 준비는 정말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인생은 행운처럼 원했던 것이 노력 없이 얻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이 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일매일 자기 계발에 힘쓰며 준비된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에세이를 보면 어린 시절 매일같이
오른쪽, 왼쪽 500개의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경기를 뛰기까지 준비한 그는
전 세계 축구 팬이 열광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라는 일련의 과정이 성장을 가져오고
성장은 성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편지 2007호〉 -

불공 잘해라
제1장 시절 인연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탄생 (2)

원정 대성사의 조부는 오늘의 장관 직급에 해당하는 정삼품 벼슬에 올라 당상관으로 출세한 손규헌(1842~1899)이다. 조선시대 벼슬길에 오르는 길은 과거 뿐 아니라 음서陰敍제도가 있었고 그에 의해 관직을 얻은 이들을 음관陰官이라 불렀다. 명망 있는 가문 출신으로 공과에 의해 추천을 받아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가 음서제인데, 소위 뼈대 있고 혈통 좋고 국가에 공적을 세운 관료의 자손 중에서 음관으로 추천받을 수 있으니 15명의 음관을 배출한 일직 손 씨 가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대성사의 성품은 조부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전한다. 정해진 시간에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성격은 할아버지의 것을 빼닮았다고 한다. 대성사의 조부는 20세 초반에 훈련원에서 무관으로 벼슬을 시작하였고, 공직 기간 중 빠른 출세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왕의 지시사항과 행정 사무 처리를 기록한 승정원일기 1864년의 기사에 대성사의 조부를 선전관으로 임명했다는 기사가 기록돼 있다. 무관에 등과한지 2년만의 일이니 승진도 무척 빠른 편이다. 선전관은 왕을 지척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여 주요직으로 간주 됐다. 또 무반 중에서 후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재들로 임명했고, 무술의 재능이 뛰어나고 용기가 담대한 이들을 주로 뽑는 자리였다. 선전관은 평소 업무 뿐 아니라 무예와 병법 훈련을 끊이지 않아 승진에도 특전을 주는 직위인데, 고종이 왕위에 오른 해 훈련원 선전관으로 임명된 것은 무예의 자질이나 성품을 인정받은 것이다.

손규헌은 1870년에는 웅천현감으로 나가게 된다. 웅천현은 지금의 진해 창원 지역 일대이고 예나 지금이나 남해안의 군사 전략상 요충지로 꼽힌다. 고향인 밀양과도 그다지 멀지 않아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지방과 중앙 관서 간에 오고 간 공문서는 각사등록各司謄錄이란 문헌에 남아있다. 그 안에 경상도 지역 삼도통제사 신정이 지방 관서장의 인사평가를 왕에게 보고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그 보고서인 1870년의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에 웅천 현감에 대해 이렇게 평하고 있다.

"웅천 현감 손규헌은 그 영명함이 간특한 계략을 살피는 데서 드러났고 그 고귀함은 사전에 대비하는 데서 고귀해졌다. 熊川縣監 孫珪憲, 明著察奸, 勤貴備處"

현감의 성품과 근무태도를 영명함과 고귀함으로 표현하였으니 문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찬이다. 아마도 현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송사의 잘잘못을 잘 가려내고 군사로써 방비를 잘 갖추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성사가 조부를 고스란히 닮았다는 이야기는 이 같은 평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영명함과 고귀함, 후일 교단을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데 그 성품이 빛을 발한 것은 명백한 일이다.

대성사의 조부는 웅천에서의 임직을 마치고 안동 현감으로 영전한다. 안동 현감 이후 함경도 6진 중 요충지인 훈융진의 사령관 격인 훈융 첨사로 임명됐으나 연로한 노모의 봉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했다. 고종 17년인 1880년 1월 손규헌은 지금의 평안도 강계에 해당하는 신광新光의 첨사僉使로 임명 됐다. 신광은 압록강을 마주하여 간도 접경이며 국방과 교역의 요충지이다. 신광 첨사는 무관으로 승진을 위해 거쳐야할 요직인 것이다. 후일 어린 대성사는 이 신광 땅을 밟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건너가니 인연의 뿌리는 깊고 오묘하다.

그해 4월 15일 승정원일기에는 고종의 지시가 기록돼있다.

"신광 첨사 손규헌이 길을 떠나며 인사를 하니 긴 활과 화살, 애기살과 통아 등을 내려주라備忘記, 神光僉使孫珪憲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임직을 받아 떠나는 무관에게 활과 화살 일체를 챙겨 하사하는 관례가 있었고, 고종 임금은 나라를 위해 멀리 변방으로 떠나는 신광 첨사를 위해 믿음의 표시를 하사한 것이다.

손규헌은 아들 셋과 딸 넷을 두는데, 첫째는 가문의 후사를 위해 양자로 보냈고 둘째인 기현基賢이 대성사의 부친이다. 대성사의 부친은 조부가 40세가 넘어 늦은 나이에 북쪽 임지인 신광에 있을 때 태어났다.

대성사가 어떻게 자랐으며 누구인가를 알려면 뼈와 살을 주고 명을 내려준 부모를 살피는 일이 당연하다. 부친인 손기현(孫基賢, 1883~1942)은 조부의 영향으로 타고난 무골이었으며, 어려서부터 병사를 호령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천성을 지녔다. 하지만 국운은 이미 기울어 더 이상 무반으로 진출할 길도 세상을 위해 꿈을 펼칠 기회도 사라진 시대를 살아야 했다. 구한말 어지러운 정세에 조부는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밀양 죽서리로 낙향 은거 한다. 정국이 어렵고 정치가 오염됐을 때 일직 손씨 조상들이 행하였던 바 옛길을 따라간 것이다.

손기현의 다른 이름은 기준基準이고 자는 보현甫賢이다. 재령이씨 이근호(1884~1968)와 혼인하여 아들 둘 딸 둘을 두었으니, 그 중 둘째 아들이 손민호, 대성사이다. 재령이씨는 영남 남인의 중심으로 번성하던 가문을 일군 밀양의 대표적인 권세가였고 부자집안이었다. 대성사의 모친은 시집 올 때 예단 뿐 아니라 찬모며 침모를 길게 거느리고 와 인근의 화제가 됐다고 전한다.

모친 이근호는 불심이 깊어 늘 말과 행동을 삼가하여 산 것을

해치는 일을 보면 말리고 꾸짖어 미물이라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랐다고 한다. 방안에 들어온 벌레 한 마리도 종이로 살짝 들어 밖으로 치울 정도로 조심했는데, 대성사는 어린 시절부터 모친의 불심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원정 대성사의 가족사진. 앞줄 가운데가 대성사의 부친 손기현, 뒷줄 왼쪽 끝이 원정 대성사

대성사가 세상에 난 것이 1907년, 시대는 어렵고 가혹했다. 고종황제는 헤이그에 일제 침탈을 알리는 특사를 보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이토 히로부미의 건의로 이완용 내각이 들어섰다. 이완용은 고종에게 총을 겨누고 압박하여 강제로 순종에게 양위하고, 정미 7 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보호령으로 전락하고 만다.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그 이튿날 순종 황제가 즉위했으나, 전국 곳곳에서 본격적인 항일 의병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해산된 군대와 전국의 의병들이 13도 창의군을 조직하여 한양에 진격하고 전국의 전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다.

시국의 여파는 대성사의 고향 밀양에도 고스란히 닥쳤다. 일찌감치 친일 조직 일진회一進會가 밀양에 조직돼 활개를 치고 다녔다. 일제 순사들이 밀양에도 주둔하며 불온한 기미를 싹부터 짓밟고 있었다. 6월이 되자 밀양 현감은 병을 핑계 삼아 문을 걸어 닫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동시에 일본어 학교를 휴교시키고 고종 양위 당시 체포됐던 이들을 모두 풀어주고 만다. 밀양 유천 일대에서 의병 30여 명이 봉기하자 일본 순사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한마디로 밀양의 분위기는 시국을 따라 요동치고 있었다. 밀양군 상남면에는 금광이 있었는데 1907년 3월 일본인 토시마라는 자가 광업권을 따내서 군민들의 원성을 샀다. 동시에 일본인들은 밀양 은행을 설립하고 계속해서 자본 수탈을 위한 금융조합을 만들었다. 밀양은 일제에 의해 영남권 경제침탈의 교두보로 인식되면서 그야말로 일인들의 수탈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압박은 점차 현실로 다가왔다. 논에 심는 벼마저 일본 종자인 하야카미리키早神力를 심도록 강요받고, 1908년에는 드디어 밀양에 보통학교가 세워져 일제의 공민 교육과 융화정책이 시작된다. 일제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나라를 빼앗겼다는 시름은 점점 깊어졌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친일의 길을 걷는 자들이 속출하고, 총을 들어 저항하던 이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그래도

항일의 기세는 꺾이지 않아 1908년 8월 21일에는 의병 20여 명이 밀양 헌병 분견대와 전투를 벌였고, 10월 27일 자 대한매일신보는 밀양에서 의병 20여 명이 일본군 수비대와 접전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밀양 인근은 경남 의병들의 주요 활동무대가 됐다.

1909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처형된다. 1910년에는 결국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폐지되고 만다. 500년을 이어가던 조선의 역사가 끊긴 것이다.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임명되었고,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을 명목으로 조선의 농지를 수탈하고 경제를 파괴하여 압박과 수탈에 나섰다.

조선 각지에서 의병 투쟁은 그치지 않고 일제를 괴롭혔다. 일본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거나 전투를 벌였고, 1907년부터 1909년까지 무려 2,700회의 전투가 벌어졌다. 참가 의병은 약 4만여 명으로 전국 어느 한 곳 빈틈없이 조선 전역에서 격렬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다.

1909년 9월에 이르러 조선총독부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일명 남한 대토벌을 벌이게 되는데 의병 토벌을 빌미로 양민에 대한 무차별 살육과 약탈을 벌여 잔혹함을 드러냈다. 103명의 의병장이 전사하고 23명의 의병장은 형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일제는 항일을 처절히 응징함으로써 반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그런 폭압에도 저항은 사라지지 않고 더 거세졌다. 1909년 10월 5일 밤 의병들은 밀양에도 나타나 일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의병이 모습을 보인 곳은 대성사의 집이 있던 산외면 인근인 부북면으로 소식은 삽시간에 밀양 전역으로 퍼졌고 일본 헌병 주재소는 급박한 사정을 총독부에 보고하고 있었다. 시대는 점차 항전의 분위기를 높여가고 있었다. 의병들은 국내에서도 전투를 벌였을 뿐 아니라, 압록강을 건너가 거점을 만들어 무한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성사의 부친은 타고난 무인이었다.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고, 뜻을 굽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그르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시대는 그에게 무릎 꿇고 살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망국의 시대에 수많은 의인들이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 망명길을 나서게 된다. 모두가 침묵할 때 훌쩍 일어서 싸우기에 나섰으니 그들이 당시 외친 말은 "너희가 팔아먹은 나라, 우리가 되찾겠다."였다.

다음호에 이어서

불공 잘해라
-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김천 지음 | 불교총지종 엮음 | 141×205(국판 변형) | 전면컬러 | 양장 | 284쪽
출간일 2021년 12월 15일 | 값 15,000원
ISBN 978-89-5746-665-0 03220

서원誓願 1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서원은 불교 신행의 첫걸음”

서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맹세코 이루겠다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클수록 계획도 더 치밀하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결심도 더 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도를 닦을 때에도 반드시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서원이 있어야 거기에 맞추어 어떻게 수행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 없이 불법을 닦겠다는 것은 목적지도 없이 길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서원을 세우는 것을 발원이라고 합니다. 발원이 간절하고 뚜렷해야 원하는 것을 더 잘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서원을 세울 수도 있지만 불교의 의식 가운데에는 불자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를 서원으로 삼아서 함께 외우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사홍서원, 오대서원, 회향서원 등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받드는 신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 즉, 소원 성취를 간청합니다. 불교에서도 물론 소원 성취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은 소원과 서원의 차이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지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결심을 불

보살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일등하게 해주세요" 하는 소원 대신에 불교에서는 "저는 일등하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은 꼭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하는 대신에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복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서원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보살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맹목적으로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저런 것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불보살님! 이런 저런 소원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배경에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해서 공덕을 쌓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기원이라는 말보다도 서원이라는 말을 더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에서 불공드리는 공간을 법당이나 불당이라고 하지 않고 서원당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무척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의 궁극 목표는 성불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 이외의 다른 중생들도 성불로 이끌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나 혼자만 깨달아서 열반의 안락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미타부처님이 법장보살이었을 때 세운 48원입니다. 법장비구는 48개나 되는 여러 가지 서원을 세운 가운데에도 "만약에 일념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고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도 "만약 언제 어디서든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 나를 부르면 반드시 그곳에 가서 구해내리라.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온갖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내시면서 아직도 보살로서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또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대승불교는 나 자신의 성불보다도 오히려 내 주위의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려면 나 자신이 먼저 흔들림이 없어야하고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지극한 이타행利他行[1]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나의 성불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승불교의 기본 개념입니다.

1)남에게 공덕과 이익을 베풀어주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행이라고도 한다.

율곡매栗谷梅의 봄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봄이다. 느낌으로 먼저 와서 여린 빛깔로, 아련한 향기로 피어나는 봄. 온몸에 와 감기는 바람이 온통 봄이다. 순천 선암사 선암매(천연기념물 제488호), 구례 화엄사 매화(천연기념물 제485호), 장성 백양사 고불매(천연기념물 제486호)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매화로 꼽히는 강릉 오죽헌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의 봄을 만나기 위해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길을 나선다.

오죽헌(보물 제165호) 초입, 양쪽으로 줄지어 늘어선 은행나무가 연둣빛 여린 움을 키우고 있는 길을 따라 들어선 오죽헌 뜨락. 딱 이 즈음이면 이곳을 그윽하게 물들이던 꽃과 향기…, 그러나 올해는 모든 것이 예전만 못하다.

1400년대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령 600여 년의 이 나무는 유독 매화를 좋아했던 사임당이 매우 아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형이 아름답고 역사성과 학술 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수년 전 기록적인 폭설에 가지가 부러지는 수난을 겪은 데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90%가 고사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검토 대상에 오르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다행히도 생육환경 개선과 뿌리 치료 등을 통해 잔존 수명을 늘린다는 전제하에 천연기념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율곡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빈약하지만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향기로 피어난 꽃은 아름다움을 넘어 처연하기까지 하다. 고결高潔, 지조志操, 인고忍苦라는 꽃말처럼 600여 번의 겨울을 거치는 동안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새 움을 틔우고 꽃을 잉태했을 율곡매의 시간이 그래서 더 장엄하고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온다.

사람만큼이나 알 수 없는 게 나무의 속내인 것 같다. 율곡매가 그러하듯 앙상한 가지로 남은 겨울나무는 소나무처럼 사철 푸른 몇몇 나무를 빼고는 대부분 이름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여름내 품어왔던 색깔의 절정도, 비와 바람을 견디면서 애써 키우고 살찌운 열매까지도 미련 없이 툭 툭 떨어뜨린 나무 위로 눈이 쌓이고, 알몸의 나무가 견뎌내는 침묵의 시간만큼 겨울이 깊어진다.

나무에게도 혹한의 끝에서 처음인 듯 어김없이 싹을 틔우던 봄날이 있었다. 아기 손바닥처럼 여리던 잎이 햇살 아래 초록을

더하며 무성해지고, 어떤 나무는 저마다의 이름대로 꽃을 피우고 또 어떤 나무는 그 이름에 걸맞은 열매를 맺었을 여름날도 있었다.

아, 그러고 보니 맛있는 과일이나 귀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건 대부분 작은 꽃이었다. 꽃잎도 여린 홑꽃잎이 많다. 화려한 꽃은 몸치장하느라 바쁜 탓에, 부지런히 물을 빨아올리고 햇빛을 모아 영양분을 만들 겨를이 없었겠다. 주변을 풍요롭고 살맛나게 하는 것이 올챙이 적 잊지 않고, 앉을 때와 설 때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의 힘인 것처럼 숲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벌레를 먹인 나뭇잎',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의 희생이다.

저 혼자 온 산을 차지한 나무는 없다. 저 혼자 우뚝 큰 나무 밑에는 올망졸망 함께 자라는 나무가 없다. 그림자가 크고 짙으면 어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잎이 너무 우거져도 하늘을 볼 수 없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경쟁하는 숲에는 희망이 없다. 햇볕이 닿지 못하는 음습한 땅에서 뭇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리 없고, 어린 나무와 가녀린 풀꽃이 자라기 힘든 곳이라면 작은 곤충조차 발붙일 공간조차 생기기 어렵다. 저마다 기세를 떨치기보다는 열 그루 중 세 그루쯤 빈자리를 남겨둬야 여러 나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건강한 숲이 된단다. 바람과 햇볕이 마음껏 드나

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단다.

사람의 속내도 나무를 닮았다. 사계절을 두루 지나면서 차츰 나무의 면면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어느 즈음이 지나서야 제 색깔을 볼 수 있게 된다. 천수천형千樹千形, 천 가지 나무에 천 가지 모양이 있다는 말처럼 평범한 한 그루 매화나무의 최선이 사임당과 율곡 모자의 숨결과 더해져 우아한 기품을 지닌 율곡매로 거듭난 것이다. 오늘의 율곡매를 만든 것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수천, 수만 가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꽃과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온 나무의 순응이다.

사람을 만드는 건 마음의 결이다. 같은 하늘, 같은 바람, 같은 물이라고 하여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니 마음의 결이 또 하나의 창조주인 셈이다. 그러고 보니 나도 어쩌면 숲의 빈자리에 노심초사하는 갑남을녀들 중 하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에 매달려 전전긍긍하느라 작은 결핍이 주는 삶의 충만함을 알아채지 못했다. 율곡매가 살아낸 인고의 세월 속에 수많은 하루, 수많은 오늘이 켜켜이 쌓여있다는 것도 헤아리지 못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웠듯 율곡매는 또 미련 없이 그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땅속 깊은 곳에서 자양분을 끌어올리고 있을 터.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을 버리는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이, 숲에게 빈자리를 내주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그 일이 단지 나무의 숙명이기만 했을까.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숫타니파타』" 라는 말씀에 기대어 세월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율곡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숲에 빈자리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살이에도 빈자리가 필요하다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 보고 듣고 느껴야 할 아름다움을 놓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점차 속이 비어 가지만 비움으로써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다고. 그릇이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듯, 비어 있음으로써 쓸모가 있다는 노자의 말처럼 속이 비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깊은 울림, 영겁의 세월이 만들어 낸 진리가 있다고.

내년에도 율곡매의 개화를 볼 수 있기를. 돌아서는 발걸음이 못내 아쉬운 나는 아직도 순응을 배우지 못한 속인俗人일 뿐이다.

봄의 목소리

김대곤
시인

새로워져라.

고운 시선을 가져라.

내려놓고

아픔들을 고운 흙속에 묻고

피워내라.

봄은

작지만 넓게 목소리를 낸다.

지워내라.

부드럽게 다시 이어가라.

가슴으로 부는 바람들을

다 사랑하라.

모든 것이

또 다시 눈물뿐인

이별이 오더라도 말이다.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6가지 마음 습관

묘원화 전수
벽룡사

삶의 고통을 부인하는 마음 습관(3)

여러 고통 중에서 최고로 치는 고통은 병고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을 보기 어렵습니다. 통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유명한 밍규르 린포체의 아버지 또한 훌륭한 명상가였습니다. 그분이 눈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수술 도중 환자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마취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수술이 중단되었겠지만 린포체의 아버지는 마취 없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공성을 깨우친 위대한 스승님들은 통증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통증을 느끼십니다. 통증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몸의 느낌이며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증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통증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위대한 스승님들은 통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힘이 강하고,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통증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통증이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 명상이나 몸 명상은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증 명상을 하면 통증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통증을 고통으로 인지하고 못 견뎌 하는 것은 통증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통증 자체는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 때문에 통증을 거부해서 아픈 겁니다. 그러니 통

증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저항하는 습관을 버리면 어떤 통증이라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아픈 것을 싫어하지 말고 '아파도 괜찮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아파서 그동안 미뤄놓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의외로 많은 포기했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수행을 통해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바라봅니다. 힘을 빼고 바라봅니다. 고통을 거부하고 저항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 습관을 닦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자신의 좋은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고통 삼매에 들게 됩니다.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감사 일기를 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아파 보면 일상적으로 세수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평범하게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 삼매경에서 빠져나오는 데 탁월한 방약입니다.

새 이야기

따오기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화음사 교도

올해도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인공 증식 중인 따오기가 산란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0여년 넘게 들려오는 얘기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늘 꿈만 같다. 30여년 넘게 새를 공부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새를 봐왔지만 따오기는 내겐 '전설 속의 동물'과 같은 존재였다. 한 번도 본적이 없고 노랫말과 사진으로만 접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눈으로 꼭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을 늘 품어왔지만 볼 기회는 없었다. 중국에서 인공 사육하며 일부 개체를 방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그곳까지 직접 가기에는 시간상 그리고 여건상 엄두가 나질 않았다. 다녀온 선배를 통해 사진으로만 보는 것으로 만족했었다. 그런 따오기가 우리나라 들녘을 날아다닌다니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는다.

따오기는 과거 19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흔히 번식하는 새로 알려져 있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외국인들의 책에서는 비교적 흔한 새로 기록되어있다. 그 후 1950년대부터 드물게 관찰되던 것이 1979년 12월을 끝으로 국내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마지막 기록의 개체도 국내에서 번식하던 개체가 아닌 중국이나 몽

(사진제공 : 창녕군청)

골 등지에서 번식 후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개체이므로 국내 번식 개체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늦은 2003년 10월에 마지막 개체가 사라지면서 절종했다.

자연계 내에서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사라졌었다. 중국에서 소수의 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따오기는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진 종으로 여겨왔었다. 사냥과 주 먹이터인 논의 오염으로 인한 먹이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다. 1981년 산시성에서 자연계에서 7마리로 구성된 마지막 개체군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따오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마지막 개체군을 모두 포획하여 인공 증식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중국 뿐 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서도 복원 개체들이 자연에서 점차 수를 늘리고 있다. 아직은 자연계 내에서 살아가는 개체수가 330여 마리밖에 되질 않지만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많은 이들이 따오기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그 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독수리 이동경로 조사를 위해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어느 주민의 집을 방문했다가 사다새(펠리칸)의 부리를 발견했었다. 이 문건이 왜 여기 있냐고 물었더니 말의 몸을 닦는 도구로 쓰인다고 했다. 과거에는 따오기 부리를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보지일 않아 대신 사다새 부리로 대용한다고 들었다. 따오기 부리가 휘어져 있어 말의 몸을 닦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라 했었다. 따오기를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냐 물었더니 최근에도 봤었다고 했다.

내 인생 가장 흥분된 그리고 가장 아쉬운 순간으로 기억된다. 따오기를 보았다는 습지의 크기는 끝을 알 수가 없었고 번식을

할 것이라는 섬은 너무 멀어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우리에겐 배도 없었고 무엇보다 배를 띄울 여건도 아니었다. 따오기가 번식할 지도 모른다는 습지 내부의 섬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사막에서 모래알 찾기 보다 더 낮은 확률이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따오기는 야생에서는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었기에 직접 관찰이 된다면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 마치 집채 같은 큰 금덩이를 길에서 주웠지만 너무 무거워 호주머니에 넣지도 소유하지도 못하는 것과 같았다. 선물로 받아온 사다새 부리를 가끔 보고 있으면 발동동 거리던 그날의 아쉬움과 간절함이 생각난다. 그 뒤 또 한 번 따오기를 야생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일본에서 복원한 개체를 자연 방사한 곳이 '사도'섬이었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야생 복원 사업을 추진한 끝에 사도섬에서는 소수가 자연에서 번식하며 개체군이 안정되어 있었다. 사도섬을 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계획을 실행하려던 순간 같이 현지 예약을 맡았던 지인이 개인 사정으로 돌연 일정을 취소, 잠적하는 바람에 결국 사도섬을 밟지 못했다. 그 후로 따오기는 '전설 속의 새'처럼 정말 나와는 인연이 없음을 인정하고 체념했었다.

그러다 2019년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첫 야생 방사가 이뤄졌고 2019년 한국의 들녘에서 녀석들을 보게 되었다. 이후 3년간 총 160여 마리가 방사되었고 2021년에는 방사된 개체가 둥지를 틀고 직접 부화한 2마리의 새끼가 둥지를 떠났다. 우리나라에서 따오기가 사라진지 43년 만에 복원되었다. 2008년 10월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2마리의 따오기가 도입된 지 14년만의 일이다. 그리고 올해도 인공 증식중인 개체가 알을 낳았다. 현재 430여 마리가 증식 중에 있어 앞으로 야생에서 살아가는 따오기는 점점 더 늘어날 계획이다.

따오기 복원 과정을 보면 한 종을 복원하기 위해 40여년 이상의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국의 마을에서 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오기가 살아갈 안전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반의 복원을 위해 큰 대가를 치르고도 우린 아직도 많은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있다. 현재 전 세계 800만종의 생물 중 100만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고 그 멸종의 원인은 결국 인류다. 인류가 살아갈 더 큰 도시를 만들고 먹거리를 위해 서식지를 파괴하고 땅을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생물 멸종의 끝은 인류의 멸종이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따오기는 없어야 한다. 덜 쓰고, 덜 버려야 한다.

파자시破字詩에 담아낸 신라 멸망과 고려 건국

이승용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先甲三日	선갑삼일	謹爾寡言	근이과언
八斤相宣	팔근상선	玉成其質	옥성기질
獨絲結罔	독사결망	人立日下	인립일하
遂破雍玄	수파옹현	喜得金夫	희득금부
火近荒原	화근황원	仁人旣歸	인인기귀
赭草渴川	자초갈천	詐言自輸	사언자수
遯于嵩山	둔우숭산	管不攝官	관불섭관
灑落水涯	쇄락수애	深居府中	심거부중
同坐輿中	동좌여중	周道用捨	주도용사
數車無車	수거무거	惟令之從	유령지종
離明在上	이명재상	新羅亡高麗興	신라망고려흥
盡拔由糞	진발유얼	昌瑾鏡作符命	창근경작부명

갑甲보다 사흘 앞서　　근謹에서 언言을 줄이고
팔八과 근斤을 폈네　　옥을 바탕으로 삼네
실 하나로 그물을 엮어서　　사람이 태양 아래에 서서
마침내 옹雍에서 현玄을 부수었네　　강한 사내를 얻은 것을 기뻐하네
불길은 거친 언덕에 번져　　인仁에서 인人이 돌아가고
풀을 태우고 시내를 마르게 하였네　　사詐에서 언言이 빠졌네
숭嵩에서 산山이 달아나고　　관管이 관官을 맡지 않고
쇄灑에서 수水가 빠졌네　　부府 깊숙한 곳에 거처하네
동同이 수레[車]에 앉아 있고　　주周에서 용用을 버리고
수레[車]를 세니 수레[車]가 없네　　오직 영令을 따를 뿐이지
밝은 해가 위에 있고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일어섰으니
유由에서 싹을 전부 뽑았네　　창근의 거울이 징조가 되었네

– 이광사(李匡師, 1705~1777),
『원교집선(圓嶠集選)』 1권, 동국악부(東國樂府), 「창근경(昌瑾鏡)」

이광사는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인 '원교체'를 이룩한 조선 후기의 저명한 서예가이다. 이광사는 1755년(영조31)에 나주괘서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 부령에서 7년, 다시 전라도 신지도로 유배지를 옮겨 모두 23년 동안 유배를 살다가 불우한 생을 마감하였다. 당세에

서예가로 이름났지만 이광사는 정제두鄭齊斗에게 수학하여 양명학에도 밝았으며, 시문詩文에도 조예가 있었다.

위의 작품은 이광사가 1758년 부령 유배지에서 지은 「동국악부」 30수 가운데 「창근경昌瑾鏡 -창근의 거울」로, 당나라 상인 왕창근王昌瑾이 저잣거리에서 어떤 노인한테 거울을 샀는데, 그 거울에 "상제上帝가 진한辰韓과 마한馬韓에 아들을 내려 보내 먼저 닭을 잡고 다음에 오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사화史話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닭은 경주의 별칭인 계림鷄林을 가리키고 오리는 압록강을 가리키는데, 고려의 태조 왕건이 신라를 차지한 다음 압록강 유역을 수복한다는 예언이다.

이 사화史話를 알고 작품을 읽어보아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짐작하기가 힘들다. 무엇 때문일까? 작품 전체가 파자破字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퍼즐을 맞추듯 각 구句를 풀어나가다 보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마지막 두 구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 2구를 보자. 갑甲보다 사흘 앞선 간지는 신辛이고, 여기에 팔八과 근斤을 더하면 '신新'이 된다. 3, 4구를 보자. 실 하나는 사糸, 그물은 망网, 옹雍에서 현玄을 빼면 추隹인데, 세 글자를 합치면 '라羅'가 된다. 5, 6구를 보자. 황荒에서 풀[艹]과 시내[川]를 빼면 '망亡'이 된다. 7, 8구를 보자. 숭嵩에서 산山을 빼면 '고高'가 되고, 쇄灑에서 수水를 빼면 '려麗'가 된다. 9, 10구를 보자. 여輿에서 수레[車]를 빼고 동同을 넣으면 '흥興'이 된다. 11, 12구를 보자. 밝은 해는 일日이고, 유由에서 싹에 해당하는 곤丨을 빼면 역시 일日이 되는데, 둘을 합치면 '창昌'이 된다. 13, 14구를 보자. 근謹에서 언言을 빼고 옥玉을 더하면 '근瑾'이 된다. 15, 16구를 보자. 사람[人]이 태양[日] 아래에 섰다[立]는 것은 경竟이고, 여기에 금金을 더하면 '경鏡'이 된다. 17, 18구를 보자. 인人은 인亻과 같고, 사詐에서 언言을 빼면 사乍인데, 둘을 합치면 '작作'이 된다. 19, 20구를 보자. 관管에서 관官을 빼면 죽竹이고, 이를 부付와 합치면 '부符'가 된다. 21, 22구를 보자. 주周에서 용用을 빼면 구口이고, 이를 령令과 합하면 '명命'이 된다.

이광사의 노년기 삶은 유배와 고난으로 점철되었으며, 그 속에서 시를 창작하는 행위는 자신의 불우함을 달래는 중요한 일상이었다. 물론 그가 불우한 일상을 달래기 위한 여흥거리로 위와 같은 파자시를 지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평범한 서체를 거부하고 구불구불하고 삐뚤삐뚤한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를 완성했듯이 시에서도 남들과는 다른 시를 지으려 했던 그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책' –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립·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지혜의 뜨락

전생에 스님이었다는 구자홍 회장을 기리며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E美지〉〈솟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인연이란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그 인연 가운데 가슴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나에게 그런 인연이 있었다. 2011년 조선일보에 '장애인문학지 〈솟대문학〉 80호를 어렵게 이끌어온 방귀희'라는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셔서 처음 뵙게 되었는데 회장님께서는 약속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배려가 깊으셨다. 내가 일하는 여의도로 오셨다. 그때 동석자는 직원이 아닌 사모님이셨다. 발달장애인화가가 그린 엽서를 드리자 너무 예쁘다고 하시며 손녀에게 주겠다고 진심으로 좋아하셨다.

그 후 1년에 한번씩 종교와 철학 저서를 쓴 작가들과 LS미래원에서 저녁을 하며 저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길벗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단 한사람을 위해 LS미래원 이동 경로 곳곳에 경사로를 설치해주어 나를 감동시켰다.

회장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솟대문학〉에 이어 〈E美지〉에 협찬 광고로 가난한 잡지를 후원해주셨다. 책을 보내드리면 그 바쁜 가운데도 꼼꼼히 읽고 장애예술인에 대해 말씀하시어 나를 놀라게 하셨다.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시는 분이었다. 2017년 〈E美지〉 5호에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응해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가족이라 집안 모임이 많았는데 그때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면 서재 구석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을 정도로 책을 좋아했다고 한다. 책을 많이 읽은 어린 구자홍은 생각이 깊었는데 그런 손자를 보고 외할머니는 전생에 스님이었을 것이란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불교적 성향을 갖고 계셨다.

길벗 모임에는 스님, 신부님, 목사님 등 각각 다른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를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말씀해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설사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충돌하는 일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회장님은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경청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마워하셨다.

명성스님 평전 〈명성〉이란 책을 읽고 스님이 계신 경북 청도 운문사를 사모님과 함께 갔었는데 스님께 연락을 드린 것이 아니어서 그냥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사모님과 책에 나오는 명성스님 얘기하며 참선을 했다는 일화가 생각난다. 이렇듯 상相을 내세우지 않고 늘 겸손하게 조용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분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약자에 대한 마음도 남달랐다. 초등학교 때 손가락 세 개가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놀려서 그 친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린 구자홍은 그 친구와 단짝이 되었다. 그 친구는 할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가 가장 맛있었다며 그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멸치를 넣은 김치찌개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다. 장애인 분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도 하셨다. 저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데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제대로 대우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다며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모님과의 러브 스토리는 더욱 감동스럽다. 사모님은 7살 때부터 왼쪽 귀의 청력이 떨어져서 왼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내용을 3~40% 정도 밖에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구회장님이 반드시 왼쪽에 앉아 왼쪽 편에서 하는 이야기 내용을 아주 작게 전달해주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었다. 두 분은 미국 유학 시절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만났는데 회장님이 사모님께 첫눈에 반해 작업을 걸었다며 그 시절을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하신 듯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웃으셨다.

20대 아가씨 눈에도 청년 구자홍의 진정성이 보였던지 자신은 왼쪽 귀가 약해서 오른쪽에서 말을 해줄 것과 오른쪽에서 큰소리가 나면 많이 놀란다고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었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해주었지만 바로 잊어버리고 자기 습관대로 행동했는데 청년 구자홍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사람처럼 아주 능숙하게 자신을 배려해주었다며 역시 행복한 미소를 가득 머금었다.

나는 그날 이후 구자홍회장님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삶에 대기업 재벌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 〈E美지〉 인터뷰 기사 제목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독서왕 LS니꼬동제련 구자홍 회장"처럼 회장님은 정말 책을 즐겨 다독하신 독서왕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지식인이다. 기업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살펴준 선지식인善知識人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남혜 정사
단음사 주교

단음사에는 여러 종류의 과실나무와 꽃나무들이 있지만 항상 먼저 봄 인사를 하는 것은 매화꽃이다. 영천은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등 과실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과실들이 봄에 꽃이 피고, 여름과 초가을에 수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과실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야 봄에 새순이 많이 나와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나무보다 과실 수확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단음사도 봄이 오기 전 대추나무와 감나무, 모과나무의 가지치기를 했다.

사람은 정신적인 상처나 고통을 극복하면 내면이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흔히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를 아우르는 말인 것 같다. 식물은 가지치기로 상처가 나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야 산란을 할 수 있다. 최근에 겨울 가뭄이 심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 산들이 황폐해졌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불에 탄 나무의 재는 거름이 되어 산은 다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단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낸다. 혼자 있으면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주 생각한다. 그러다 잘못한 일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떠오르면 참회를 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행복할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와 가장 불행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결론은 가장 행복했을 때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이고, 가장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 역시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였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과거는 행복했을 때보다 불행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단지 지나간 추억이고 아무것이 아닌 일이었다. 불행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아무것도 아닌 일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행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해 보았으면 좋겠다. 불행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불행의 실체가 있다면 내가 과거에 불행했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불행한 감정을 느껴야한다. 불행의 실체를 파헤치다 보면 불행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고통이라는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고, 세 번째는 음식으로 인한 고통이고, 네 번째는 자연환경에 의한 고통이다. 정신적인 고통은 불행하고, 화나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함 등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이고, 육체적 고통은 육체에 가해지는 타격에 의한 고통이며, 음식으로 인한 고통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먹지 못하거나, 잘못 먹음으로써 생기는 고통이다. 부처님께서도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상한 음식을 먹고 결국 열반이 이르게 된다. 우리 몸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병은 음식의 잘못된 섭취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 의한 고통은 더위, 추위, 홍수, 가뭄, 지진, 태풍, 화산폭발 등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고통이다.

이 네 가지 고통 중 우리가 해결해야할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마음의 불이 꺼진 상태, 즉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인 육체적 고통, 음식에 의한 고통, 자연환경에 의한 고통은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첫 번째 화살로 인해 생기는 두 번째 화살인 정신적인 고통은 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반성과 참회, 그리고 수행을 통해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環境과 심경心境

김봉래
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

“환경은 금방 바꾸기 어렵지만 심경은 바꿀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우리나라의 향후 5년 미래를 만들어 갈 선택이 이뤄졌다. 이제는 선택에 따른 인과가 기다리고 있다. 집권 세력이 사상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불명예를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밝혀나갈지 주목된다. 국민들이 감시를 게을리 해선 안 되며, 동시에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여 좋은 인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해야 한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확실히 알기 어렵다지만 지나보면 알게 된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최선의 선택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체적인 안목이나 각 세부 분야에 대한 통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전문가끼리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보통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리.

더구나 최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훗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훗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복불복 아니냐. 되는 대로 살자며 자포자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선인낙과 악인고과善因樂果 惡因苦果'라 하듯 결국은 좋은 일을 해야 복을 받고,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라고 선행을 쌓은 집안에 복이 깃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짧게 보면 결과에 일희일비 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관통하는 인과법칙 앞에 고개 숙이게 된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면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 권하는 것은 후자 쪽이다. 자포자기가 아닌 마음을 비우는 일이란 어떤 사안에 대해 지나친 확신이나 기대를 갖지 말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언제나 자기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에 헐떡이지 않는다. 일체지자一切智者이신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판단은 아예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높은 신뢰를 가지고 '내가 옳다' 고집한다. 설상가상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면 공존이 가능할 텐데 서로 틀리다 하니 대결과 불화를 면치 못한다.

이런 중생 인식을 극복하고 보살의 인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바일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입장을 조금씩 비워가야 한다. 그게 잘 안 된다면 성인과 도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배워 익힐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도 줄이고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선거에서 어느 쪽을 지지했든 결과에 승복하고 잘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출발은 마음이다. 한 마음 잘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자신의 고집을 꺾기 어려우며, 새로운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잘 들으려면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을 바꾸기 전에 자기를 바꿔나가야 한다. 주위 환경環境은 마음대로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자기 마음의 환경, 심경心境은 바꿀 수 있지 않은가. 마음이 바뀌다보면 어느새 환경도 바뀌고 상대도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된다. 아니 본래 자기가 생각하던 상황이 아니요, 본래 자기가 생각하던 상대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카일라스의 순례

김규현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 소장

밀라래빠의 토굴, 쥬툴푹

내가 누구인지 그대는 아는가? 나는 명상수행자 밀라래빠라네.
가슴 속에 깨달음의 꽃이 핀 사람이라네.
칼칼한 목소리로 그대에게 비유의 노래 부르리라.
진실한 말로 그대를 위해 진리를 설하노라.
따듯한 마음으로 그대에게 충고의 말 전하노라.
그대 안에 깨달음의 보리심 싹터 해탈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노라.
나의 가르침 따라 진리로 나아가면 영원한 기쁨이 그대를 감싸리라
-밀라래빠의 『십만송』

불교의 전입 이전에는 이 산은 샤머니즘적 전통종교인 뵌뽀교의 성지였다. 이름 또한 '강 린뽀체'가 아닌 그냥 눈의 산인 '강 디세'였다. 어느 날 유명한 밀교행자 밀라래빠가 찾아와 수행할 곳을 찾음으로써 당시까지 주인이었던 뵌뽀와의 한판승부가 벌어졌다. 표면상으로는 강 디세 산의 헤게모니 쟁탈전이었지만, 실제로는 전 티베트고원을 걸고 싸운 전면전의 양상이었다. 그렇기에 어느 쪽에서도 결코 물러날 수 없는 건곤일척의 대회전이었다. 이 역사적인 싸움은 3막으로 구성되었고 뵌뽀의 대표선수는 유명한 초능력자였다. 서막은 뵌뽀의 선공으로 시작되었다.

"세상에는 밀라래빠가 참으로 위대한 자라고 알려져 있건만 알고 보니 벌거벗고 잠자는 늙은 망나니에 지나지 않네. 아름다운 노래 입으로 읊고 다니지만 손에 든 것은 등지팡이 하나뿐 찾아보아도 위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

우리 뵌뽀의 신은 '센랍'이시니 스와스띠카[雍仲 卍字]가 그 상징이네. 입 크게 벌린 무서운 흡혈대신이네. 머리는 아홉 개요 팔은 열여덟이니 온갖 신통력 지닌 대왕이시네."

뵌뽀교의 대표선수 나로뵌충은 빈정거리며 시비를 걸었고 밀라래빠는 받아쳤다.

"명성 높은 백설의 디세산은 지순하고 흠 없는 붓다의 가르침을 상징하네. 수많은 강물 모여드는 마팜유초 호수는 절대의 진리세계 상징하네. 이 늙은 미라는 벌거벗고 잠자니 이원二元의 상대세계의 초월을 상징하네.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내 가슴속에서 넘쳐흐르는 샘물은 붓다의 경전들을 말하는 노래들이라네. 손에 쥔 지팡이는 윤회의 바다 건너는 도구 마음과 물질 통달한 머리는 신들의 도움 없이도 모든 기적 행하네."

말로서 끝날 싸움이 아니었다. 이윽고 실력대결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마팜호수에서, 다음에는 장소를 옮겨 디세 산기

슭에서 싸움은 이어졌다. 일회전은 순례방향의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밀라는 왼쪽으로, 뵌충은 오른쪽으로 서로 힘을 써서 상대방을 잡아 당겼지만 승부가 나지 않아 둘은 일 단 각기의 방향으로 꼬라를 돌았다. 그리하여 지금도 그 자리에는 그 때의 발자국들이라고 전해오는 것들이 바위에 선명하게 남아있게 되었다.

둘은 산을 한 바퀴 돌고나서 다시 쥬툴동굴 앞에서 부딪혔는데, 마침 소낙비가 내려 둘은 잠시 휴전하고 합작하여 비를 피할 집을 짓기로 했다. 기초석과 지붕을 분담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둘은 암암리에 술수를 써서 상대를 방해하면서 집을 지었다. 완성된 집의 지붕이 너무 낮아 밀라가 밀어 올리자 이번에는 너무 높아져 다시 내려 눌러 지금과 같은 적당한 높이가 되었다. 역시 이때의 두 사람의 손자국이라고 전해오는 것들이 지금도 천장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삼회전은 산꼭대기 오르기 내기였다.

뵌충은 마술의 북을 타고 날아올라 정상 근처까지 갔지만, 그때까지도 밀라는 선정에 들어 움직이지 않았다. 뵌충의 승리로 끝나려는 순간, 이때 아침 햇살이 비추자 밀라는 앉은 채 순식간에 빛을 타고 공간이동을 해서 정상에 안착하였다. 이에 놀란 뵌충이 북을 떨어트려서 굴러 내리는 바람에 산에는 지금도 깊은 고랑이 생겼다고 한다.

싸움은 점입가경이었지만 3판 모두 밀라래빠의 승리였다.

불교의 승리였다. 이에 나로뵌충은 패배를 인정하고 디세 산의 소유권을 밀라래빠에게 내어주었다. 이에 밀라도 너그러이 디세 산과 마팜호수의 참배권은 인정해주기로 양보하여 지금도 뵌뽀교도들은 자유로이 그들 방식대로 오른쪽으로 순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그렇게 하여 강 디세산은 강 린뽀체, 즉 '눈의 활불活佛'이 되었고 광재용왕廣財龍王이란 뜻의 '마추이초'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진리의 호수"란 뜻의 마팜유초가 되었다. 그렇게 하여 오색의 무당巫堂 깃발 날리던 티베트고원은 '옴 마니 반메 훔'이 울리는 불국토가 된 것이었다.

밀라래빠 Milarepa (1052-1135), Dhodeydrag Gonpa, Thimphu, Bhutan

티베트의 고대 역사는 어찌 보면 뵌뽀교와 불교의 '대립과 융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자의 손이 누구 편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시대적 부침은 겪었지만 두 종교는 끊임없이 '대립과 융화'를 되풀이 하였다. 일견하면 티베트가 완전한 불교국가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두 종교 간의 갈등의 역사는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불교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위의 밀라래빠의 일화는 실은 그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밀라래빠에 의해서 불교는 뵌뽀를 젖치고 민중들의 가슴속에 깊숙하게 불심을 심게 된 계기를 맞게 된다. 그만큼 그는 티베트불교사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영향력이 큰 전설적인 인물이다.

밀라래빠(1052-1135)의 생애는 드라마틱한 반전의 연속이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재산을 친척들에게 빼앗긴 복수를 하기 위해 흑마술黑魔術을 배우려고 집을 떠난 밀라는 이를 갈아가며 뵌뽀의 저주법을 배워 고향으로 돌아와 그의 집안을 배신한 친척들을 33명이나 죽였다고 한다. 그러나 통쾌할 것만 같았던 그의 가슴은 그 때부터 지옥불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을 찾아다니며 회개의 길을 찾아가 인도에서 무상요가법(無上Yoga)을 터득하고 돌아온 마르빠를 만나게 된다.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밀라래빠는 참으로 피나는 고행을 한 끝에 원만경지에 들어 스스로 박은 가슴속의 못을 빼고 보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한 평생 흰 옷을 입고 청빈하게 살면서 노래로서 중생들을 교화하였기에 그의 이름은 밀라래빠, 즉 "무명옷을 입은 사람"으로 인구에 회자되었다. 그는 말년에 이곳 쥬툴푹 동굴에서 쐐기풀을 삶아 먹으며 고행으로 일관하는 수 년 간을 보냈다. 그는 질그릇 하나를 발우삼아 궁핍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실수로 질그릇이 깨어지자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질그릇은 나의 스승이 되었다. 이 질그릇이 깨어지면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세속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그는 주위의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는 겸허함으로 세상을 대하며 항상 참회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주위에는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의 가르침을 경청하였다고 한다. 주로 노래로서 전해지는 그의 가르침은 10만개나 된다하여, 그의 제자들은 그것들을 묶어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후세에 전하였다. 바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십만송」이 그것이다. 불교사적으로도 그의 족적은 크다. 까귀파의 전통대로 그의 법을 전수받은 의발제자인 감뽀빠에 의해 까귀파는 종풍을 크게 날리며 설역고원 곳곳까지 전파되어 후에 '4갈래 8파'로 갈라지며, 지금까지 티베트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디딤돌

호흡 바라보기

신진욱 법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우리에게 호흡은 생명이다. 호흡은 그 자체로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 과정에 익숙해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와의 관계를 계발할 수 있다. 또한 호흡은 마음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꾸준히 마음 챙김 호흡 명상을 하면 마음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통해 또렷한 의식으로 늘 깨어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망상, 걱정, 잡념과 환상으로부터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 늘 깨어 있으면 마음이 온갖 생각으로 어지러울 때, 그 생각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호흡에 대한 명상은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된다.

그럼 실행에 앞서 우선 바른 자세로 편안하게 앉는다. 바닥에 앉는다면 반가부좌를 튼다. 만약 의자에 앉는다면 척추는 편안하게 세우고 두 발을 바닥에 댄다. 그리고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고 팔과 어깨는 편안하게 힘을 뺀다. 턱은 가볍게 당기고 시선은 1m 정도 바닥에 편안하게 둔다. 얼굴과 턱의 긴장뿐 아니라 혀의 긴장도 풀고 혀끝을 윗니 바로 뒤에 가볍게

닿게 한다. 명상을 하려고 앉을 때 타이머를 맞추거나 향을 피워도 좋다. 향은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타이머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마음을 호흡에 집중해 보자.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잡념에 빠졌다는 것을 자각하면 부드럽게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호흡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싶어도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야생의 마음 상태이다. 마음의 야생마가 날뛰는 가운데 기수가 허둥대면 우리는 고요한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명상의 과정은 우리를 전문 기수로 만들어 말을 길들임으로써 마음을 좀 더 의지적으로 움직이도록 단련시키는 것과 같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안정적이면서도 규칙적인 들숨과 날숨의 흐름을 확립하게 된다. 이렇게 마음과 호흡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재정비하는 가운데 안정감이 형성되고 호흡은 더 깊어진다. 그 결과 생긴 마음의 힘과 여유는 우리의 전신으로 퍼져 나가며 우리 몸 전신에 존재하는 의식과 하나 되어 빛을 발하게 된다. 호흡에 집중 하다보면 우리는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되고 마음이 맑아지며 다른 대상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된다. 현재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아차림으로써 호흡은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를 떠돈다. 마음이 과거에 매이다보면 쉽게 감상에 빠져 우울해지고 과거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심지어 뒤늦게 화가 나기도 한다. 반대로 마음이 미래에 있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과 염려에 늘 불안해한다. 물론 과거를 반추하여 지나간 일을 성찰함으로써, 현재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가능하다.

과거의 사건은 이미 지난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오직 현재뿐임을 명심하자. 미래의 계획도 현재에서만 세울 수 있다. 호흡과 함께 현재에 충실할 때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현존할 수 있고 명료한 시야로 삶의 파도를 끌어안을 수 있다.

아버님 전상서

남익 보살
벽룡사

그리운 아버지,

어이 이리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시는지요?

어머니 열반 후에 슬픔을 겨우 진정시키려 할 즈음 꿈에도 생각지 못한 큰 슬픔을 또 맞이하게 되었어요. 새해 불공을 마칠 즈음 편찮으시다 하여 찾아 뵀는데 얼마 후에 먼 길 떠나실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당신을 그려봅니다.

남 기字 수字 우리 아버지!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경북 청송군 현동면에서 2남 1녀 중 장남이신 아버지!

일제 강점기에 탄압을 피해 보다 나은 곳으로 만주로 이주하셨어요. 만주에서 소학교를 다니셨고 총명하여 학급에서 급장을 하셨어요. 만주, 봉천, 대현, 일본 등지로 수학여행을 다녀오시고 일찍이 신문물을 접하셔서 열린 사고를 지니셨어요. 일제시대가 끝나갈 즈음 고국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셨어요.

청송에서 22살 되던 해 두 살 터울의 어머니와 혼례를 올리셨어요. 흰 치마 저고리와 흰 두루마기를 입은 두 분, 한 폭의 그림같이 청초한 모습이셨어요. 청송에서 저와 여동생을 보시고 키우셨지만 아무 발전 없는 앞날에 일찍이 대륙의 신문물을 접하신 당신이 그냥 계실 리 만무했습니다. 일가친척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도회지로 삶의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포항에서 여동생, 남동생 둘을 보시고 불철주야 가족을 위해 도회지 생활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지요. 찬바람이 매서운 겨울! 새해 불공 때면 아버지 따라 포항 심인당에 불공하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찬바람을 막아 주시느라 앞에서 걸으시면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50년 전 어린 날이 꿈결같이 그려집니다. 국민학교 육학년 무렵 경부 고속도로가 막 개통되고 포항에도 고속버스가 들어왔어요. 버스 옆구리에 말 그림이 크게 그려진 '그레이하운드'라는 고속버스 회사가 생겼는데 그 고속버스를 보시고 "저거 타고 서울 갔으면" 하시며 막연히 동경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말은 제주도로 아이는 서울로, 가족을 위해서도 대도시가 나을 텐데 하시며 동경하셨어요.

한번 품은 생각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서울로 가시겠다하자 어머니를 비롯하여 주변사람들, 친척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만류하셨어요. 50년 전 대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대변혁이었죠. '서울이 무서워 과천부터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 모험에 가까운 결정이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 기상의 모험가셨습니다. 훗날 오남매 모두 결혼시키고 지난날을 돌아보시며 서울로 상경하심을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기셨어요. "내가 젊었더라면 미국이라도 갔을 끼다." 강단 진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리하시고 남았으리라 여겨집니다. 말 그림이 그려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는 길에 본 차창 밖은 고속도로 길 닦느라 공사가 한창이었을 즈음이었어요.

서울살이!

아버지께서 고생 많으셨다고 훗날 어머니께서 회상하셨어요. 가장의 책임을 막중하게 짊어지고 이겨내신 그 숭고한 모습의 원천은 자식사랑이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식들이 속 썩여도 큰소리 한번 안 내시고 속으로만 삭히시던 모습. 그 시절 아버지상은 헛기침만 해도 무서워하는 엄부자모의 시절이었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마냥 순하시고 마음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자애로우시니 화목한 가정 속에 어린 우리들은 천진난만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친척들은 아버지를 공자님이라고 불렀어요. 귀공자 같이 수려한 외모, 군살 하나 없는 호리호리한 체격,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소유자셨어요. 어머니께도 좋은 남편이셨죠. 소녀시절 어머니와 송편을 빚었는데 송편을 예쁘게 잘 빚으면 잘생긴 신랑을 만난다는 데 "엄마 송편 예쁘게 잘 빚어 잘생긴 아버지 만나셨나봐" 하니 송편을 빚으시며 당연하다는 듯 자신만만히 싱긋 웃으시던 어머니 얼굴이 또렷이 생각납니다.

서양의 커피 광고모델 같다고 주변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좋은 날에 한복을 곱게 입으신 흥이 많으신 어머니와 손잡고 춤추시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떠올려집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시며 도란

도란 정담을 나누시던 잠결에 들은 두분 음성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재산을 모으기보다 자녀들 교육에 두 분 힘쓰셨습니다. 딸이라 차별 않고 공부 많이 시켜주시어 세상의 광명을 볼 줄 알고 막힘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명이 많으신 어머니! 웃으실 땐 코로 웃는 듯한 아버지! 저희 오남매 지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 복을 타고났습니다. 내세에 당신들의 딸로 다시 태어나 효도하겠습니다.

자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한 가정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오신 아버지!

말갈기 휘날리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는 진취적 기상의 아버지!

저희 오남매 키우시느라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크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린 날 포항역에서 어디 볼 일 가시는 지 기차타고 가시면서 웃음 띤 얼굴로 손 흔들어 주시면서 떠나셨는데 지금 저희들을 두고 잘 있으라고 손 흔들어 주시면서 떠나시는군요.

그리움만 남긴 채…

어머니 떠나시고 많이 적적해하시고 그리워하셨는데 극락정토 다다르시면 저 만치서 "익히 아부지요?" 하시면서 뛰어오시는 어머니를 만나 두 손 덥석 잡고 반가워 어쩔 줄 모르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맑고 청정한 성품처럼 아버지께서 살기 좋은 꼭 맞는 그 곳으로 편히 보내드리리다.

약주 한 잔 하시면 당신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외손녀딸 단비를 위한 노래를 부르시며 골목어귀로 오셨는데, 생전의 아름다운 당신 모습이 담긴 영정 사진을 고이 들고 외손녀 딸 단비가 공자 같으신 외할아버지 사시기 좋은 그 곳으로 잘 모시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극락정토에서 편히 쉬시고 가끔은 지상의 저희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이쁜 우리 아버지 꽃가마 타고 어머니 찾아 먼 길 가시네!

그 곳은 어디메요!

그 곳은 극락정토인 것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디 안녕히 가시옵소서.

옴마니 반메훔!

2022년 3월 18일
큰 딸 올림

진정한 사랑은?

법일 정사
정각사 주교

매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능력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셋이 나타나 청혼을 하였다. 세 청년은 모두 빼어나게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라 누구를 골라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런 어느 날 처녀가 갑자기 병을 얻어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세 청년과 처녀의 가족들은 비탄에 빠져 시신을 묘지로 옮겨 깊이 묻었다.

첫 번째 청년은 처녀의 묘지 옆에 움막을 짓고 슬픔과 그리움에 젖어 낮과 밤을 보내며 운명을 원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청년은 방랑자가 되어 세상 곳곳을 떠돌았다.

세 번째 청년은 혼자된 처녀의 아버지를 위로하며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방랑하던 둘째 청년의 앞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묘약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청년은 묘약을 가지고 죽은 처녀의 묘에 왔다. 죽은 처녀가 다시 살아나는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다시 살아난 처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고 세 청년은 다시 처녀의 신랑이 되기 위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청년이 말했다.

"난 그녀의 묘지 옆에 살면서 밤낮없이 그녀를 지켰소."

두 번째 청년이 말했다.

"나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세상을 떠돌았고 마침내 그녀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었소."

세 번째 청년도 말했다.

"난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는 그녀의 아버지와 가족을 돌보며 살았소."

이윽고 처녀가 말했다.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도, 아버지를 잘 돌보아 준 것도 감사합니다만 저를 진정 사랑한 분은 무덤을 지키며 저의 곁을 떠나지 않은 분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세 청년 중에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것인가?

고려불화

위드다르마 편집실

고려시대에는 전문적인 화가들을 양성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림들을 그리는 관청인 도화원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시대에 융성했던 불교를 보호 장려함으로써 불교문화를 그대로 계승한다. 이 시대는 한국 불교사상 가장 불교의례가 성행했던 때이고 아름다운 고려불화가 조성되었던 시기이다.

고려시대의 그림은 크게 일반회화와 불교회화로 나눌 수 있으나 불화 이외에는 남아있는 작품이 매우 적어 내용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반적인 그림들은 원색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은은하고 깊은 맛을 주며 여성적이고 귀족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반면, 고려불화는 붉은색, 녹청, 군청 그리고 금니인 금가루로 대표되는 채색법과 전면을 가득 메우는 각종 문양과 장신구 등, 화면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보면 자기주장이 강하며 전혀 서로 조화를 이룰 것 같지 않게 보이며 오히려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는 신비롭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전체적인 조화가 뛰어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지고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화면구성 요소들이 지닌 특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고려불화의 기본색은 앞서 언급했듯이 단지 붉은색, 녹청, 군청의 삼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만큼 종류가 적다. 그리고 각 부분에 있어 농담의 차이 같은 것은 시도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 작품 속에서 다른 부분일지라도 일관되게 같은 느낌의 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색채의 단순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얇은 묘선을 중복하여 그어 면을 작게 구분하고 그로 인해 화면은 층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그 위에 다시 문양을 그려 넣음으로써 화면에서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즉 복층적인 묘사를 통해 심오한 정신세계와 신비한 미의 세계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법은 고려불화의 도상상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규제된 도상의 탈피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던 것 같다. 즉 도상의 틀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작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고, 결국 세부 묘사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짐작된다.

이러한 불화는 왜 조성하였을까??

1. 불화는 예배의 대상이다. 오늘의 불교미술을 논하는 입장

에서는 불교미술도 순수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미술품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불화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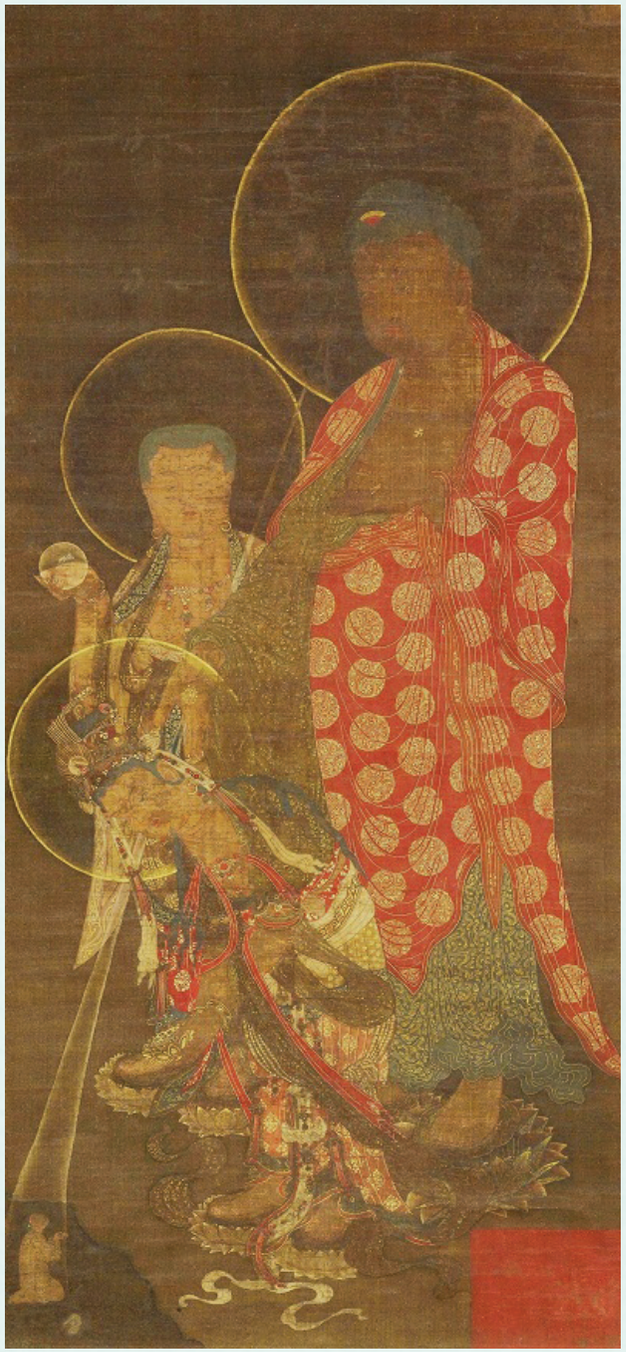
2. 불화는 찬탄의 대상이다. 스스로를 참회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공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불화는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미타여래가 극락정토를 아름답게 장엄하기 위하여 백만 억 국토의 장엄한 모습을 모두 관찰하고 그 중 제일 아름다운 모습만을 골라 극락세계를 이룩하였다는데 연유하여 불교적 아름다움을 관찰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4. 불화는 발원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스스로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보살의 대서원을 의미한다.

5. 불화는 회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취한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불화를 조성하고 봉안함으로써 자기 자신만이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많은 중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락의 세계로 이끌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발췌: 위드다르마 34호 윤승호 '불교미술 이야기'



국보 제218호 아미타삼존도. 리움미술관 소장 (사진출처 : 문화재청)

각종 진언의 공덕 下

위드다르마 편집실

5) 준제진언准提眞言

이 진언은 능히 십악오역의 죄를 소멸하고 일체 공덕을 성취하며 재가와 출가와 음주식육과 대처협자를 불문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지심으로 지송하면 능히 단명한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하게 수를 더한다. 만약 박복하여 직업이 없이 빈천하고, 고통스러운 자가 항상 이 진언을 지송하면 능히 현세에서 전륜성왕의 복을 얻고, 구하는 바 관위를 반드시 얻을 것이며, 지혜를 구하는 자 큰 지혜를 얻고, 자녀를 낳고자 하는 자 반드시 자녀를 낳으며, 무릇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어서 여의주와 같은 것이라.

또한 이 진언을 지송하면 국왕대신과 모든 중생들이 환희심을 일으켜서 볼 때마다 사랑하고 공경하며, 이 진언을 지송하는 사람은 물에 빠짐이 없고 불에 상함이 없으며, 독약과 원가와 전란과 강적과 악룡과 모든 귀매 등이 모두 침해하지 못하고, 법대로 지송하면 관세음보살과 금강수보살을 친견하게 된다.

이 준제진언은 이십오부 진언을 총섭한 것이므로 진언 중에 왕이라고 하여 일체 제불보살들이 같이 설하였으며, 이에 용수보살이 준제불모심다라니를 게송으로 찬탄하여 가로되,

준제관음 진언은 공덕 무더기
적정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일체의 큰 재난과 모든 고통이
이 사람에게 침해하지 못하며

인간세계 살 때나 천상에서도
존경과 복받음이 부처같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 만나게 되면
얻는 공덕 결정코 등대 없으리.

모든 경궤에 의하면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준제진언으로써 육자진언의 공덕을 더 일어나게 하고, 또 육자진언으로써 준제진언의 공덕을 더 일어나도록 하는 상승적 공능功能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6) 광명진언光名眞言

이 진언을 외우는 자는 광명을 얻어 여러 가지의 중죄重罪를 멸하고 숙세의 업과 병고와 장애를 없애고 지혜와 변재辯才와 장수복락長壽福樂을 얻게 된다. 이 진언으로 가지加持한 토사土砂를 죽은 사람이나 무덤 위에 뿌리면 망자는 이고득락離苦得樂한다. 몸을 깨끗이 씻고 항상 대비심을 내어서 때에 따라 공양하고 수지독송하며 중간에 빼먹지 않고 십만 번을 채우면 관정삼매야를 성취하게 된다.

모든 죄업의 과보가 제거되고 괴로운 몸을 버리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연꽃에 화생化生하고 보리菩提를 이룰 때까지 다시는 고통에 떨어지지 않는다.

7) 대륜일자주大倫一子呪 '부림'

이 진언은 말법시대에 법이 멸하고자 할 때에 큰 세력이 있어 능히 세간을 크게 이익케 하고 여래의 일체 법장을 보호하며, 능히 일체 팔부중을 항복받고, 능히 일체 세간의 악주를 최파하는 것이니 곧 일체중생에게 쾌락을 주며, 여의주와 같이 모든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사방 오백역내에 모든 악귀가 모두 흩어져서 도망가며 모든 악성천마가 감히 가까이 침하하지 못하고, 다른 진언을 지송하여도 성취되지 않을 때는 곧 이 진언을 함께 염송하면 결정코 성취된다.

만약 성취되지 아니하고 영험이 없으면 그 주신들이 머리가 일곱 쪽으로 부서진다 하였으니 곧 이 진언이 능히 일체 진언을 도와서 성취되게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발췌: 『육자의궤 염송』 법경 지음(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뜻바루기

마야(māyā)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마야(māyā)는 산스크리트어로 '환영幻影' '속임수' '외관外觀'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는 마야라는 환영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마야는 그러한 덧없음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공즉시색의 논리로 보면 덧없는 현상과 실재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공이라는 실재에 즉하지 못하고 형체나 개념에 동결되거나 경직되어 있는 생성된 사물로써의 마야(māyā)는 덧없는 환영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관계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 속에만 국한되어 있다. 환영적인 자아성을 유지하고 유지하려는 깨닫지 못한 인간의 개별성·육체성은 이 부정적인 뜻에서 마야이다.

이런 부정적 마야 즉 환영에 머물게 되면, 일체의 형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정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덧없는 변화뿐이다. 부처의 눈만이 변환의 불변성을 볼 수 있다. 변환은 정신이 활동하는 형태이며 생명 그 자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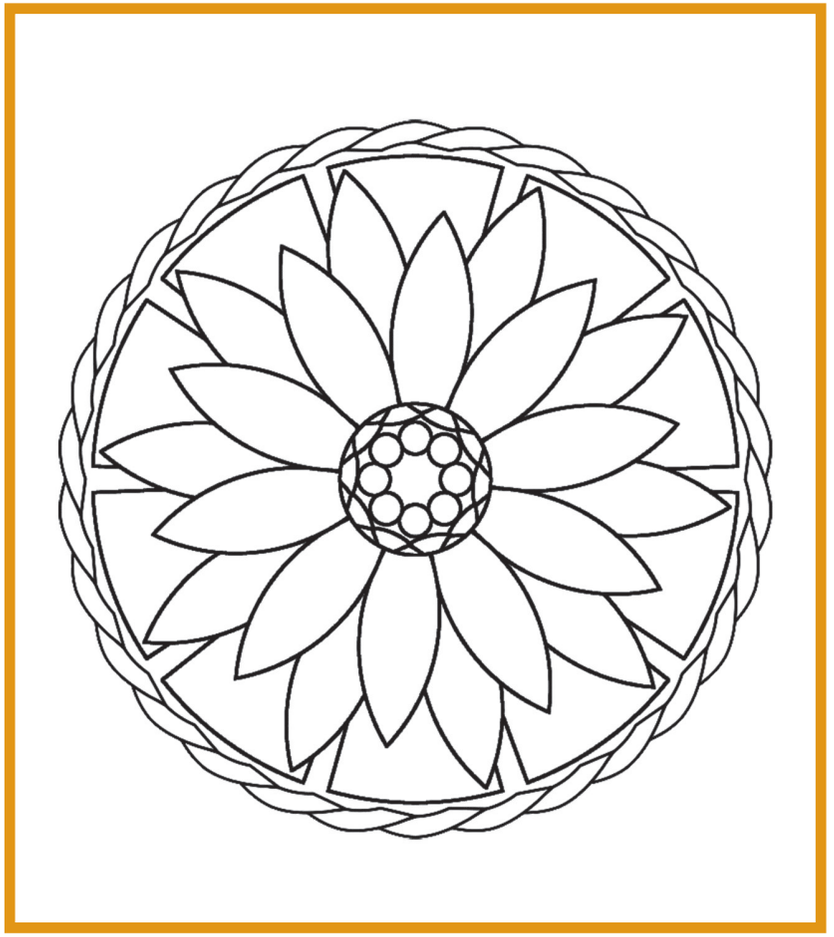
만약 법신의 의식에서 볼 수 있다면 모든 고립적인 외관적 형체는 환영이지만, 가장 깊은 의미에 있어서 환영은 실재의 창조적인 상이다. 여기서 마야는 환영의 원인이 된다. 그것은 전체로서 즉 그 연속성, 창조적 기능에 있어 즉 변환과 보편적 관계의 무한한 힘으로서 볼 수 있는 한에서는 환영 그 자체는 아니다.

현상계의 환영적인 외관의 형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마야의 힘이지만 마야 자체는 환영이 아닌 것이다. 이 힘을 터득한 자는 손아귀에서 해탈의 수단을 얻고, 요가의 주력呪力을 얻으며, 창조, 변환, 재통합의 힘을 얻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창조의 어떤 것에 머물러서 그것을 자기 한정적 존재 상태로 한정하려고 하자마자, 그림자를 실체로 부분적인 상을 궁극적인 실재로 순간적인 것을 그 자신에게 존재하는 무엇인가로 파악함으로써 곧 환영의 먹이가 된다.

불보살의 신체(kāya) 또한 부정적인 의미의 마야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영으로부터 해방되어 한정되지 않고 더 이상 '나我'에게 속박되지 않는 마음의 의식적 창조이기 때문이다.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 서울 김지원

▲ 서울 심봉례

▲ 서울 유영신

▲ 서울 전추면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종 종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진호국가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 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숭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종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년자 김종철 김희곤 법 공 손경옥
안한수 오승헌 오채원 오현준 이인성 이태림
이혜성 자선화 정재봉 정화연 주건우 총지화
한칠수 성화사신정회일동

발 행 일 총기 51(2022)년 4월 1일
발 행 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상우
발 행 불교총지종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편집 후기

혼란스러운 나날의 연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려나 했더니,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세계가 공포의 기류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국내엔 역대 최대, 최장기 피해라는
강원도 산불 재난에
선뜻 납득이 가지않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까지.

임인년 검은호랑이가 의미하는 바가
아무런 두려움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호랑이라던데
실로 불안하고 불길한 기운이 깔려있는 정세입니다.

모든 변화엔 대가 내지는 통증이 수반되고
또 그게 결과적으론 더 나은 결정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낱 평범한 중생인 우리네들에겐 버거운게 사실입니다.

불자이든 아니든,
지금 우리 주위에 산재한
모든 미혹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중심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못가 버드나무 두세 가지를
늘어진 한 가지는 봄바람에다
또 한 가지 꾀꼬리 노래 부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쓸데없다고
함부로 말씀들을 말아 주셔요
그래도 적이나 이 마음에는
우리 님 말 맬때만 기다린다오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시편 -

www.chongji.or.kr

04
9 772733 976006
ISSN 2733-9769